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9월 11일 (제1166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엔진이 꺼지면?

남태평양에서 참치잡이를 하는 문경연 집사가 기도원에 왔을 때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목사님, 사람들은 대개 망망대해에 서는 집채만 한 파도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가장 무서운 것은 파도가 아니라 배의 엔진이 꺼지는 일입니다. 엔진만 멀쩡하면 어떻게든 키를 조절해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엔진이 꺼져 버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배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엔진은 배의 심장이다. 사람도 심장이 멈추면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배의 엔진이 멈춰버리면 배가 사망한 셈이니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목숨도 안전하다 할 수 없다. 나는 문 집사의 말을 듣고 ‘기도가 멈추는 것은 배의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으니 기도가 끝나면 인생이 전복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인생은 항해다. 그러나 즐거운 뱃놀이가 아니다. 크루즈를 타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파도를 헤치며 가야 하는 험난한 항해다. 그때 가장 두려운 것은 여리고 같은 문제나 흥해 같은 문제가 아니다. 엔진, 기도가 멈추는 것이다. 엔진이 꺼지면 망망대해에서 배가 꼼짝달짝 못하게 되고,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결국 배가 뒤집혀 고래나 상어밥이 되거나 익사하게 된다. 기도가 멈추면 인생이 나아가질 못하고,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결국 뒤집혀 마귀의 밥이 되고, 영적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엔진이 튼튼하면 큰 파도가 와도 견뎌낼 수 있다.

인생의 파도는 늘 몰아쳐온다. 기도하면 파도가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삼킬 것 같은 큰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따라온다.

나는 38년 동안 수많은 파도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침몰하지 않은 것은 강력한 엔진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낙타무릎이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했다. 기도시간이 아까워 밥을 두 끼 먹을 정도로 기도했다. 이것이 큰 파도 앞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다.

성경에 쉬지 말고 하란 것은 딱 하나, 기도다. 절대 침몰하지 말고 전복되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학생 3일 금식수련회

9월 1일 12시까지 모든 신학생들은 기도원으로 집결하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명령이 떨어졌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선지 생도들이 기도원에 모였고, 각자가 2박 3일 동안 머물 텐트를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훈련이 시작되었다.

목사님께서는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을 진두지휘하셨다. “경험을 능가할 지식은 없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평소 일성(一聲)처럼, 이번 수련회는 목회자로서 경험해야 할 모든 종류의 경험을 하게 하시려는 목사님의 명확한 의도가 느껴지

덤에 묻고 가길 바란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단순히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면 그가 전하는 말을 믿을 성도가 누가 있겠는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거짓말을 했다가 한날한시에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식언치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의 편에 설 것인가?”, “목회는 잔머리로 안 된다. 너희

하는 감나무도 자신이 자라지 못하게 울아매고 있는 영경귀를 제거해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쥐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생각해볼라.” 그리고 기도원 식구들과 함께 길이 없던 곳의 나무와 잡초들을 제거하여 길을 만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회자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지도자는 앞장서서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예수중심제자신학원 2022학년도 신학생 3일금식기도회(9월 1일~3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는 일정들로 진행되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는 물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도 했고, 기도동산에 올라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산상기도 시간도 가졌다. 광야와 굴에 유리하며 복음을 전했던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사도 바울처럼 텐트를 천막 삼아 생활하는 것도 체험할 수 있었다.

목사님은 기도시간 사이사이에 다니엘서와 느헤미야서, 열왕기서를 통독하게 하셔서 생도들로 하여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직함과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가 전염되게끔 인도하셨다. 그리고 생도들을 직접 교육하시면서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자질에 대해 거듭 강조하셨다. “나는 너희들이 이 기도원에 거짓을 난도질해서 무

는 핑계와 변명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회개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먼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들이 돈과 명예와 이성(음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았다. 목회자로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진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반복해서 죄를 짓다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

특히 목사님께서는 설교시간에 언급하셨던 영경귀가 뒤덮인 감나무밭으로 생도들을 직접 데려가셨다. 그리고 몇몇 생도들에게 직접 영경귀를 제거하라고 하시면서 생생한 가르침을 주셨다. “말 못

되어야 한다. 내가 직원들에게 지시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면 불평불만이 쌓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내가 직접 연장을 들고 풀을 제거하면서 앞장을 서니까 다들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다. 목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앞장서서 길을 만드는 선한 목자들이 되어라.”

목사님은 산상수훈과 더불어 생도들과 함께 금식하시면서 전심전력으로 생도들을 가르치셨고, 마지막 교육 때는 생도들의 머리에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해주셨다.

목사님의 헌신과 기대에 부응하여 수련회에 임한 모든 생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롭고 정직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예수중심제자신학원 신혁주 학생처장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119:162~165)



정직과 진실은 축복이요, 거짓과 핑계는 멸망이다

지난주 저는 30여 명의 신학생들에게 2박 3일 동안 금식기도를 시키며 성경을 근거로 직접 교육했습니다. 제가 신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교육한 내용은 ‘거짓되지 말고 진실해라. 거짓을 이 기도원에 다 묻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이 된다고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정직하고
남에게 진실하자

저는 이와 똑같은 말을 2005년 세계목회자영성세미나에서도 했습니다. 세미나 첫 시간에 세계 30여 개국에서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저는 “거짓말을 죽여서 이 기도원에 묻고 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고, 여러분 목회자,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의 후 통성으로 기도하자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거짓된 삶을 회개하고 청산했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을 후에 만나보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을 기도원에 묻고 와서 진실하게 사니까 목회도 잘 되고, 가정도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요. 실제 그들은 예전보다 교회가 많이 성장했고, 사업가들도 성공한 것을 많이 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일곱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 119:163~165).

이번 신학생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희망을 봤습니다. 저는 신학생들에게 금식하는 중에는 절대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미리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중에 “혹시 핸드폰 쓴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몇몇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맙다.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해줘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교육 후에 세 학생이 저에게 와서 “사실 저도 핸드폰 했는데 아까 손을 안 들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거짓을 고백해준 신학생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그깟 것 가지고 뭘 그러세요?’ 하십니까? 아닙니다. 작은 거짓말도 안 됩니다. 저는 제 차를 운전해주는 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 묻거든 이리저리 핑계 대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해라.” 왜냐?

모든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요8:44).

여러분, 거짓과 핑계는 멸망의 형제입니다. 그 샘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치고 전리품을 취해 돌아옵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모

든 소유를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이 왜 그랬느냐고 묻자 사울은 거짓말로 이를 둘러댁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삼상15:15). 대개 거짓이 들통나면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진실하지 못한 대가네요?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왕권도 박탈당했으며, 비참한 종말을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행5:1~2). 아나니아는 아내인 삽비라와 함께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한 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도 볼까요? 그는 여리고 점령으로 얻은 전리품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

임을 당했습니다(수7).

그렇다면 정직과 진실은요? 당연히 축복의 형제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 신임을 받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그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위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에 젊은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명언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 하리이까”(창39:9). 거짓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로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었

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시며 만민 앞에서 그를 신원해주셨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눈앞의 이득을 위해 거짓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진실을 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인데요.

여러분,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고(눅 12:2), 또 진실은 영원하나 거짓은 눈감 짝일 동안뿐이기 때문입니다(잠12:19). 다윗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의 처에 반하여 그를 취하고 그가 잉태하자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앞장을 세워 전사하게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완전한 각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전쟁터의 군인들도 눈치채지 못한 완전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다윗의 죄는 만천하에 드러나고 맙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죄를

꼭꼭 짊어졌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곧바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합니다. 그는 핑계 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자복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핸드폰 사용여부를 물을 때 손을 들지 않았지만, ‘진실되라’는 제 강의를 듣고 저에게 이실직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들을 용서했듯 하나님도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와 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잠15:3). 둘째, 거짓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계곡 없는 산이 없듯 흙 없는 사람이 없기에 때론 진실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얼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옷에 얼룩이 묻은 것을 오래 두면 나중에는 빨아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이치와 같기에 죄는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다보면 나중에는 양심에 화인이 맞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딤후4:2).

정직하고 분명하면
땃땃하고 당당하다

저는 38년 동안 어디서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못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거짓말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히6:18).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를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욕 질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잠6:16~19).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지옥에 보내드립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계22:15).

거짓말을 해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 때론 빨리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천국 입성을 거부당할 일이라는데 굳이 하시겠습니까? 거짓이나 꾀로 하지 마세요. 정직하면, 진실하면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잠2:7). 그러므로 늘 정직하지 못한 자신과 진실하지 못한 자신과 싸워 이기십시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리라”(잠12:22).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당신은 무엇에 목마른가

믿음의 명작

수가성 여인은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살았을까? 그녀의 마시고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은 무엇이였을까? 주님은 그녀에게 ‘네가 마시는 물은 마셔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고 있나. 마셔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에 목말라 하며 사는 것 아닐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이미 마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나. 혹시 수가성 여인처럼 마셔도 마셔도 목마를 어떤 것들에 목말라하고 애통하는 것은 아닐까.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7).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다. 누구든지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이다. 목사도, 성도도, 불신자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께 와서 마시면 생수가 흘러넘치는 경험을 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목사든, 성도든, 불신자든 주를 향한 목마름이 없어서 이 말씀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예외가 없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일꼬”(시42:1~2),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시63: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시84:1~2).

이런 목마름이나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벼랑길 굽이굽이 헤맨 것 같이 주를 찾는 갈급함이 없다.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고 사모함으로 쇠약하여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없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에 목말라 해매며 일생을 보내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른채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안타깝다. 아간처럼, 발람처럼, 가룟유다처럼.

그런 길에서 속히 돌아서야 한다. 망령된 길을 가지 말라. 주님 가신 길, 사도들과 목사님이 가신 길을 사모하며 가야 한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오로지 하여 주를 향한 목마름으로 주를 사모하며 살다가 주님을 뵈어야 한다.

주님,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목마르게 하소서. 주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소서. 아멘!

이시대 목사

:: 세상은 보는 창 ::

:: 내가 매일 기쁘게 ::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그럼, 나는 누구한테 위로받나?

만약 어떤 선장이 배의 방향은 묻지 않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속도만 내라고 고함만 친다고 생각해보자. 키를 잡은 항해사가 “어느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할니까?” 하고 물을 때 화를 버럭 내면서 “방향은 중요하지 않고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눈에 선하다. 그러므로 현명한 선장은 배가 가고 있는 속도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다.

우리의 인생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지금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속도에 관심이 많다. 초고속 승진, 남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는 것, 더 많이 재산을 모으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빨리 유명해지는 것, 온통 속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산다. 그러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지쳤는데 마침 마차를 만났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라고 마부에게 부탁했다. 마부는 기꺼이 그나그

네를 태워주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묻기를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마부가 대답하기를,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지요.”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30분 정도가 지났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마부가 말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고 그새 30분이 지났잖아요?” 마부가 말하기를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가는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어도 목적지에 이를 수 있지만,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는 방향보다는 속도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인생 길에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지금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정금 전도사



전훈지 집사

문제에 지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예수중심교회 성도 운영광입니다. 1년 만에 다시 간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저의 시각장애를 감사로 승화시킨 간증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다면, 이번에는 제가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어떻게 트럼펫 연주자로, 어떻게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31살입니다. 저는 11살 때부터 트럼펫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악이라는 걸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건 3살 무렵입니다. 처음 음악을 접할 때는 그저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비록 어린 3살이라는 나이였지만, 저는 소리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3살 때 음악을 오디오로 들으면서 어른들에게 질문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이 오디오 안에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나요? 저도 이 오디오 안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오디오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오디오 안에 들어가면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당장 만날 수가 있나요?'라는 것이었습니다.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다가 시각 장애까지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음악을 오디오로 들을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신기하였고, 연주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늘 강조하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저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은 모든 것들이 듣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트럼펫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트럼펫 연주에 관한 박사 과정을 밟아 가는 것도 맨 처음에는 음악을 듣는 것부터였습니다.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은 듣는 것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한 필수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두 눈이 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듣는 훈련이 제일 먼저 행해지기 때문입

니다. 그 다음은 손끝 발끝으로 느끼는 훈련을 해야만 시각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트럼펫 연주자가 되기까지는 청각 훈련과 촉각 훈련을 열심히 받은 덕분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게 되었는지, 트럼펫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살 때 트럼펫을 처음으로 배울 당시에 트럼펫이 너무나도 배우고 싶어서 저 혼자 용기를 내어 택시를 타고 동네에 음악학원을 돌고, 114에 전화를 걸어 시립교향악단과 여러 음악 단체들의 주소를 알아내고 택시 기사님의 도움으로 시립교향악단과 여러 음악 단체들을 찾아가 '저 트럼펫 배우고 싶으니 저 트럼펫 좀 가르쳐달라'고 졸랐습니다. 거짓말 하나도 보태지 않고 4개월간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졸랐습니다. 음악학원이나 시립교향악단이나 많은 음악 단체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꼬마야, 너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트럼펫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중심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비록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두 귀와 들을 수 있는 청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도 있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그것은 '네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과 '포기는 자살행위이니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될 때까지 끝장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당시 11살이었던 저의 마음에 희망과 담대함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싶은 것이 트럼펫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트럼펫을 가르쳐주실 선생님이 배정이 될 때까지 저는 매일 택시를 타고 음악학원과 음악단체를 줄라 마침내 4개월 만에 저에게 트럼펫을 가르쳐주시겠다는 선생님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펫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처음으로 트럼펫 레슨을 받는 날에 트럼펫을 잡고 입으로 부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리코더처럼 입에 바람만 넣으면 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펫을 불기 위해서는 먼저 입술과 얼굴이 만나는 지점의 근육을 발사키는 것을 맨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입을 다문 채로 입술을 양옆으로 당기며 불은 절대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 훈련부터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입술과 턱과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머리가 핑핑 돌아 어지러웠습니다. 이 부분을 트럼펫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꾸준히 하루 두 시간만 트럼펫을 불면 입술과 얼굴과 만나는 지점의 근육

도 다 발달할 것이며 턱이 아픈 것도 없어질 것이고, 머리가 아프고 핑핑 도는 어지러운 증상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총회장 목사님의 또 다른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모방은 제2의 창조다'라는 설교 말씀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누구나 다 100점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두 입술을 다문 채로 입술을 양옆으로 당기면서 불이 나오지 않게 하며 입술과 얼굴이 만나는 지점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매일 그저 두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트럼펫을 불고, 불고, 또 불었습니다. 여러분, 놀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깐 한 달 만에 트럼펫 소리내는 것을 오히려 터득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펫으로 웬만한 찬송가들은 자유자재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트럼펫이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기분이 정말로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트럼펫이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저는 13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트럼펫 전공자의 길로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서 전공자 레슨을 받았고, 대회도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 13살 때에 처음으로 나간 대회가 한국 장애학생 음악경연 대회였는데요, 그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비록 장려상이었지만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나가게 될 대회에서는 반드시 1등을 해야겠다는 계획과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다음 나가는 대회에서 1등상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정말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6살입니다. 제 마음속에 장애인 음악대회 말고 비장애인들이 나가는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SBS방송의 광고를 접하게 되었는데, 광고의 내용은 SBS 음악콩쿠르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요, SBS방송을 들었는데요, SBS 음악콩쿠르가 있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그 콩쿠르에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저에게 트럼펫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SBS 콩쿠르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소유하신 트럼펫 선생님을 저에게 배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SBS 콩쿠르에서 반드시 1등을 하여 제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빛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8시간씩 연습하며 콩쿠

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SBS 콩쿠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1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힘을 받아 여러 콩쿠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굳이 미국에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품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시각장애가 제 삶의 족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애라는 한계요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할 시간에 더 열심히 배우고 더 많은 정보와 기술 습득을 하는 데 시간을 쏟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펫의 고장 중에 하나인 미국으로까지 가서 제 자신의 질적 향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통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 고난과 역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 때문에'라는 사상에서 '~덕분에'라는 사상으로 바꾸셔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명품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운영광 성도**

